

## 조선 시기 문헌의 중국 근대음 반영 상황 재고\*

- 疑母를 예로

노혜정\*\*

### — 목 차 —

1. 서론
2. 중국 근대음 疑母의 변천
3. 朝鮮 時期 文獻에 반영된 疑母
  - 1) 朝鮮 時期 文獻과 중국음
  - 2) 朝鮮 時期 文獻에 반영된 疑母
4. 결론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중국 근대음 시기에 발생한 疑母의 변화를 예로 조선 시기 문헌에 반영된 중국 근대음의 반영 상황에 대해 고찰한다. 조선 시기 문헌에서 표음 문자인 한글 자모로 표기된 중국 근대음은 중국어 음운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疑母를 예로, 『洪武正韻譯訓』(1455)의 正音, 俗音, 『翻譯老乞大』(1517)와 『翻譯朴通事』(1515(?))의 左側音, 右側音, 『四聲通解』(1517)의 正音, 俗音, 今俗音 등에 나타난 疑母 개별 글자들의 상황과 각 문헌에 나타나는 여러 注音 체계의 성질을 살펴보고, 중국 근대음과의 비교를 통해 조선 시기 문헌에 기록된 중국 근대음 자료로서의 가치에 대해 재고찰한다.

\* 본 논문의 주요 내용은 第十九屆國際暨第三十九屆全國聲韻學學術研討會&第四屆韓漢語言學國際學術會議(2011년 8월 20-22일)에서 발표되었음

\*\*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연구교수

키워드: 疑母, 중국 근대음, 『中原音韻』, 『洪武正韻譯訓』, 『四聲通解』, 『翻譯老乞大』, 『翻譯朴通事』, 正音, 俗音, 今俗音, 左側音, 右側音

## 1. 서론

본 연구는 중국 근대음 시기에 발생한 疑母의 변화를 예로 조선 시기 문헌에 반영된 중국 근대음의 반영 상황에 대해 고찰한다. 조선 시기 문헌에서 표음 문자인 한글 자모로 표기된 중국 근대음은 중국어 음운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疑母를 예로, 『洪武正韻譯訓』(1455)의 正音, 俗音, 『翻譯老乞大』(1517)와 『翻譯朴通事』(1515(?))의 左側音, 右側音, 『四聲通解』(1517)의 正音, 俗音, 今俗音 등에 나타난 疑母 개별 글자들의 반영 상황을 살펴보고, 중국 근대음과의 비교를 통해 조선 시기 문헌에 반영되는 중국 근대음 자료로서의 가치에 대해 재고찰한다. 2장은 『中原音韻』을 중심으로 疑母의 변화 과정과 시기 등에 대한 개괄이다. 3장은 조선 시기 문헌에 나타나는 한글 자모 표기음의 성질과 체계의 특징, 각 문헌과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며, 조선 시기 문헌에 나타나는 중국 근대음 疑母의 반영 상황에 대해 『中原音韻』과 비교하여 살펴본다. 4장은 본 연구의 결론이다.

## 2. 중국 근대음 疑母의 변천

中古 疑母는 宋代부터 연구개 비음 ‘ŋ’에서 영성모로 변화가 시작되어, 元代에 일부 글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영성모로 변화하였다. 北宋 邵雍(1011-1077)의 『皇極經世聲音唱和圖』(이하 『聲音唱和圖』)는 次濁 鼻音인 疑母를 清의 ‘清(五瓦仰□)’과 ‘濁(吾牙月堯)’로 나누어 배치하였는데, 이는 당시 구어음에서 清의 疑母에 배치된 글자들이 이미 자음성을 잃고 영성모로

변화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한다(唐作藩 2012[2017]: 168). 疑母는 13世紀 末 『蒙古字韻』(1297경)과 14世紀 『中原音韻』(1324) 시기에 일부 글자를 제외하고 대부분 영성모로 변화하여 影喻母에 합류된다. 『中原音韻』에는 『廣韻』 疑母字가 200개 출현하는데, 이 중 138개 글자는 影喻母와 함께 놓이고, 5개 글자는 泥娘母로 들어갔으며,<sup>1)</sup> 57개 글자는 따로 놓여 있다(寧繼福 1985: 205, 楊耐思 2012: 106 참고).

(예) 『中原音韻』 中古 疑와 影喻母의 합류 예(일부)<sup>2)</sup>

가. 魚莫二: -iu

a. 平聲陽: (影)迂紆於 [第13空]

b. 平聲陰: (疑)魚漁虞愚隅禹 [第8空]

(喻)余餘芋予畚雩與輿歛璵昇好歟譽孟與榆愉兪覩瑜窻逾渝闕  
於諛莫, (生)氾 [第8空]

c. 上聲: (疑)語圉語語故禦 / (喻)雨與愈羽宇禹庾 [第1空]

d. 去聲: (影)嫗 / (疑)御馭遇 / (喻)裕諭芋譽預豫; 育鴿 [第1空]

入聲作去聲: (疑)玉獄 / (喻)欲浴 / (影)郁 / (喻)育 / (喻)鴿 [第6空]

나. 先天二: -iuən

a. 平聲陽: (影)淵 / (影)冤宛鵠鴛蜿 [第16空]

b. 平聲陰: (疑)元霍 / (喻)圓員 / (喻)捐 / (喻)園 / (喻)園 / (喻)袁猿轅 /  
(疑)原嫺源 / (喻)垣 / (喻)鉛鳶 / (喻)援 / (喻)援 [第11空]

c. 上聲: (喻)遠 / (疑)阮 / (影)苑畹 [第1空]

d. 去聲: (喻)院 / (疑)願愿 / (影)怨 / (喻)遠 / (喻)援 [第1空]

대립쌍은 없으나 독립적으로 놓여 있는 疑母에 대해 寧繼福(1985), 楊耐思

1) 寧繼福(1985: 205)는 ‘泥來’에 들어간 것으로 보았다.

2) 『中原音韻』(1324)의 재구음과 예는 寧繼福(1985)의 聲韻併合表를 참고하였다. 이하 본고의 『中原音韻』의 재구음 寧繼福(1985)를 따른다.

(1981) 등은 [ŋ] 또는 영성모로 재구하였다. 따로 놓여진 57개 글자들 중 影  
 喻母와 최소대립쌍을 이루는 것들이 있는데, 이는 『中原音韻』에서 疑母가 여  
 전히 影喻母와는 다른 성모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구체적인 예들은  
 아래와 같다.

(예) 『中原音韻』의 中古 疑母와 影喻母의 대립<sup>3)</sup> 4)

가. 江陽二: -iaŋ

上聲: ŋ- (疑)仰上 [第21空]

∅- (影)鞅 / (喻)養痒 [第2空]

去聲: ŋ- (疑)仰去 [第25空]

∅- (喻)養兼揚養樣 / (影)快缺 / (喻)漾恙 [第4空]

나. 蕭豪一: -au

去聲: ŋ- (疑)傲鼻整 [第8空]

∅ - (影)奧懊澳 [第30空]

蕭豪三: -iau

入聲作去聲: ŋ- (疑)虐瘡 [第8空]

∅- (疑)岳樂 / (喻)藥 / (影)約 / (喻)躍鑰淪 [第1空]

다. 歌戈一: -o

上聲: ŋ- (疑)我 [第12空]

∅- (影)婀 [第10空]

去聲: ŋ- (疑)餓 [第12空]

3) 『中原音韻』(1324)의 예는 寧繼福(1985)와 楊耐思(1981)를 참고하였으며, 재구음은 寧繼福(1985)를 따른다. 董同龢(1968[2001]: 69)는 江陽韻의 ‘仰’은 저자의 오기로 판단하여 영성모로 보았으며, 歌戈韻의 ‘虐’은 [n]으로 재구하였으나, ‘虐’의 독음과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았다.

4) 楊耐思(1981: 28, 2012: 106)는 대립이 있는 예에 車遮(入聲作去聲)의 ‘[第4空] (疑)業艱額’와 ‘[第3空] (喻)拽噎謁葉/(影)燁’을 추가하였다. 董同龢(1968[2001]: 64)는 이는 『中原音韻』에서 ‘○’가 잘못 추가된 것으로 보았고, 寧繼福(1985: 119)는 이들을 去聲 喻母 ‘夜射以’와 함께 모두 영성모에 배치하였다.

Ø- (疑)萼鶚 / (影)惡壘 / (疑)鄂 [第5空]

歌戈二: -io

入聲作去聲: η- (疑)虐瘡 [第7空]

Ø- (疑)岳樂 / (喻)藥 / (影)約 / (喻)躍鑰 [第1空]

『中原音韻』(1324)은 疑母의 약 70%의 글자가 影喻母에 합류되었으나, 여전히 影喻母와 일부 대립하는 예들이 있으므로, 疑母는 아직 영성모로 완전히 합류된 것은 아니며, 일부 글자들은 疑母 η-으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sup>5)</sup> Shen(2020: 248-249)은 비슷한 시기의 북방음을 파스파 문자로 나타낸 자료인 『蒙古字韻』(1308)의 對音 자료에 나타나는 疑母 [ŋ]는 모든 습모와 二等四等 開口에서 소실되어, 一等과 三等 開口에만 남게 되었다고 하였다. 濱田武志(2019: 88, 91)는 『蒙古字韻』의 疑母 ㄹ <ŋ>과 云母 ㄴ <'>의 출현이 상보적 분포를 보이기 때문에, 疑母와 云母는 조건 변이로, 모두 영성모임을 밝혔다. 이들의 연구를 종합하면, 『蒙古字韻』에서 독립된 음소로서의 疑母/η-/는 一等 開口에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 『蒙古字韻』에 나타나는 疑母 ㄹ <ŋ>과 云母 ㄴ <'>의 상보적 분포(濱田武志 2019:91)<sup>6)</sup>

ㄹ	ᄀᄀᄀᄀ <ŋin> 銀迺 X	ᄀᄀᄀᄀᄀᄀ <ŋiün> X	ᄀᄀᄀᄀ <ŋan> 豺岸 X	ᄀᄀᄀᄀᄀᄀ <ŋüan> X	ᄀᄀᄀᄀᄀᄀ <ŋén> 言彦 X	ᄀᄀᄀᄀᄀᄀ <ŋüen> X	ᄀᄀᄀᄀ <ŋav> 敖愕 X	ᄀᄀᄀᄀᄀᄀ <ŋév> 鴉虐 X	ᄀᄀᄀᄀᄀᄀᄀ <ŋüev> X
ㄴ	ᄀᄀᄀᄀ <'in> X	ᄀᄀᄀᄀᄀᄀ <'iün> 雲韻 X	ᄀᄀᄀᄀ <'an> X	ᄀᄀᄀᄀᄀᄀ <'üan> 頑 X	ᄀᄀᄀᄀᄀᄀ <'an> X	ᄀᄀᄀᄀᄀᄀ <'üan> 袁 X	ᄀᄀᄀᄀ <'av> X	ᄀᄀᄀᄀᄀᄀ <'év> X	ᄀᄀᄀᄀᄀᄀᄀ <'üev> 雙 X

5) 董同龢(1968[2001]), 羅常培(1932) 등은 『中原音韻』의 疑母가 이미 모두 영성모화 되었다고 보았으며, 楊耐思(1981), 趙蔭棠(1984), 寧繼福(1985), Hsueh(1975[1990]) 등은 『中原音韻』의 疑母가 아직 음소로서 존재하고 있다고 보았다.

6) 파스파 문자의 음가는 원문을 그대로 따른다. 濱田武志(2019)의 파스파 문자의 음가는 Shen(2020)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본문의 토론 내용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관련 내용은 생략한다.

『中原音韻』에 나타나는 疑母의 상황도 『蒙古字韻』과 유사하다. 대부분의 글자들이 영성모가 되어 影喻母에 합류되고, 일부 影喻母에 합류되지 않은 疑母들은 蕭韻豪, 歌戈韻, 江陽韻으로 대부분 中古 效開一, 果開一, 宕開一 등 一等 開口 글자들이다.<sup>7)</sup> <표1>은 『中原音韻』에서 影喻母로 합류하지 않은 中古 疑母 글자들의 中古音韻地位와 『中原音韻』의 재구음이다.

<표1> 『中原音韻』에서 影喻母로 합류하지 않은 中古 疑母 글자

字	中古音韻地位 <sup>8)</sup>	中原音韻	字	中古音韻地位	中原音韻
邀	效開一平豪疑	蕭豪一 ηau	莪	果開一平歌疑	歌戈一 ηo
敖	效開一平豪疑	蕭豪一 ηau	哦	果開一平歌疑	歌戈一 ηo
厥	效開一平豪疑	蕭豪一 ηau	娥	果開一平歌疑	歌戈一 ηo
龜	效開一平豪疑	蕭豪一 ηau	俄	果開一平歌疑	歌戈一 ηo
癸	效開一平豪疑	蕭豪一 ηau	峩	果開一平歌疑	歌戈一 ηo
瞽	效開一平豪疑	蕭豪一 ηau	蛾	果開一平歌疑	歌戈一 ηo
嗽	效開一平豪疑	蕭豪一 ηau	鵝	果開一平歌疑	歌戈一 ηo
磬	效開一平豪疑	蕭豪一 ηau	訛	果合一平戈疑	歌戈三 ηuo
驚	效開一去号疑	蕭豪一 ηau	仰	宕開一平唐疑	江陽一 ηaŋ
躑	效開三平宵曉	蕭豪一 ηau	昂	宕開一平唐疑	江陽一 ηaŋ
齧	效開二上巧疑	蕭豪二 ηau			

<표2>는 『中原音韻』에서 影喻母에 합류하지 않고, 또한 影喻母와 대립쌍이 있는 中古 疑母 글자들의 中古音韻地位와 『中原音韻』의 재구음이다.

7) 그러나 ‘訛, 躑, 齧’과 ‘仰, 虐, 瘡’ 등 예외 글자가 있다.

8) 中古音韻地位는 『廣韻』을 기준으로 한다.

<표2> 『中原音韻』에서 影喻母와 대립쌍이 있는 疑母의 예

字	中古音韻地位	中原音韻	字	中古音韻地位	中原音韻
仰 <sub>上</sub>	宕開三上養疑	江陽二 ηiaŋ	虐	宕開三入藥疑	蕭豪三 ηiau 歌戈二 ηio
仰 <sub>去</sub>	宕開三去漾疑	江陽二 ηiaŋ	瘡	宕開三入藥疑	蕭豪三 ηiau 歌戈二 ηio
傲	效開一去号疑	蕭豪一 ηau	我	果開一上駕疑	歌戈一 ηo
熬	效開一去号疑	蕭豪一 ηau	餓	果開一去箇疑	歌戈一 ηo
鼻	效開一去号疑	蕭豪一 ηau			

17세기 초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이하 『等韻圖經』)(1606)의 성모 체계에 疑母는 출현하지 않으며, 泥母로 들어간 예외 글자를 제외하고, ‘哀矮艾崖烏吳悟午暉’ 등 疑母 글자들이 모두 影母, 喻母 글자들과 함께 影母 아래에 배치되어 있어, 모두 영성모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선교사 니콜라스 트리코(Nicolas Trigault)가 기록한 『西儒耳目資』(1626)를 통해 당시 官話에 발생한 疑母의 변화 과정과 변화 조건에 대해 관찰할 수 있다.<sup>9)</sup> 그는 疑母 글자들 중 開口呼 글자들은 g-[\*ɣ-]로 기록하였고, 齊齒呼, 合口呼 글자들은 영성모로 기록하였는데,<sup>10)</sup> 『中原音韻』에서 影喻母로 합류하지 않은 中古 疑母 글자들은 소수 글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開口 一等 조건을 가지는 글자들이다. 또한, 대부분 영성모로 나타나는 『西儒耳目資』의 合口呼 글자들 중 ‘ㅍm ú, gú’, ‘誤 ú, gú’와 같이 영성모와 연구개음 두 개의 독음이 모두 기록된 예들이 있는데, 이들은 음이 변화하는 과정에 발생한 두 개의 변이음을 모두 기록한 것으로, 疑母가 [ŋ]에서 영성모로 변화하는 과정 중에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sup>11)</sup>

이 밖에 『中原音韻』 중 中古 疑母 소수 글자는 泥母에 진입하여 n-으로 읽는다.

9) 『西儒耳目資』(1626)에 기론된 明末 官話의 기저음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다. Coblin(1997)은 『西儒耳目資』(1626)에 기록된 明末 官話는 南京音을 기초로 하는 표준음으로 보았다.

10) 『西儒耳目資』의 예와 注音은 Coblin(1997)의 부록을 참고하였다.

11) 齊齒呼 글자들에 나타나는 관련 예는 대부분 영성모와 [n-]으로 나타난다.

(예) 『中原音韻』 中古 疑가 泥娘母로 진입한 글자<sup>12)</sup>

가. 車遮一: -iɛ

入聲作去聲: n- 齧藁, 臬 [第1空]

나. 先天一: -ien

上聲: n- 讞<sup>13)</sup> [第8空]

cf. 牛 Ø-: 尤侯(陽平); 虐 η-: 蕭豪(入聲作去聲), 歌戈(入聲作去聲)

<표3> 『中原音韻』에서 泥母에 들어간 中古 疑母 글자

字	中古音韻地位	中原音韻	字	中古音韻地位	中原音韻
藁	山開三入薛疑	車遮一 nie	齧	山開四入屑疑	車遮一 nie
讞	山開三上獮疑 山開三入薛疑	先天一 nien	臬	山開四入屑疑	車遮一 nie

‘藁齧讞臬’ 등은 모두 車遮韻, 先天韻 글자들로, 모두 山攝 開口 三·四等 入聲 글자이며, 전설성이 강한 모음 -iɛ가 후행한다. 『中原音韻』에서 泥母에 들어간 ‘齧臬讞’ 등 글자는 『蒙古字韻』(1308)에는 ‘齧臬’ ㄗㄨ<yie>, ‘讞’ ㄋㄣ<ɲɛ> 등 영성모 혹은 연구개 비음으로 나타난다.<sup>14)</sup> 현대 북경음에서 [n-]으로 발음되는 疑母 ‘牛’는 『中原音韻』에서는 영성모로 나타난다. 『蒙古字韻』(1308)에서 ‘牛’는 ‘有’와 함께 ㄋㄨ<ɲiv> [ɲ-]로 나타나며, ‘虐’는 ‘鴞’와 함께 ㄋㄨ<ɲév> [ɲ-]로 나타난다. ‘牛’는 『等韻圖經』(1606)에 이르러서 泥母에 놓여 [n-]으로 나타난다.

寧繼福(1985: 206)는 주요모음이 a, ɔ인 소수 韻部 안 글자들에 η-가 남아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疑母 연구개 비음 성모 η-의 소실과 보존에 주요모

12) 5개 글자 중 한 글자는 찾지 못하였다.

13) ‘讞’는 『廣韻』에서 山開三上獮疑, 山開三入薛疑 두 개의 음운지위가 있다.

14) 파스와 문자와 전사표기는 濱田武志(2019: 92)를 참고하였다. ‘臬’는 본고에서 『蒙古字韻』에 근거하여 추가한 것이다. 濱田武志(2019)의 ‘y’는 Shen(2020)의 ‘j’이다. ‘齧’의 현대 북경음은 niè(한어병음)이다. 연구개 비음에서 영성모가 되었다가 다시 설침 비음인 [n-]으로 돌아가게 된 점이 특이한데, 회귀음변, 방언접촉 등의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유사한 사례가 북방방언에서 많이 관찰된다.

음이 주요한 조건이며,  $\eta$ -의 유지에 모음의 후설성이 관련되었음을 시사하는 지적이라고 볼 수 있다. Hsueh(1975[1990]: 91)는  $[\eta-]$ 의 기능 부담량이 점점 줄어들어 『中原音韻』 시기에  $[\eta-]$ 는 거의 소실되었으며, 二等的 주요모음과 같아진 外傳 一等을 제외한 나머지 一等의 주요모음 앞에서만  $[\eta-]$ 이 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15)</sup> 『中原音韻』에서 주로 [+후설성], [+저설성] 모음 앞에 놓이는 疑母가  $[\eta-]$ 로 남아있는데, 연구개 비음의 조음부위가 구강 뒤쪽이기 때문에, 조음의 편의성에 의해 변화가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16)</sup> 張世方(2010: 88)은  $[\eta-]$ 의 소실과 보존의 원인을 운모 전체에서 찾았는데, 『中原音韻』에서  $[\eta-]$ 는 몇 개의 예외를 제외하면 대부분 一二等 글자들이며, 주로 果效宕攝에 속하는 非상용자들로, 전체 운모의 조음부위가 비교적 뒤이기 때문에 연구개 비음과 조화가 잘 되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고 보았다. 또한 蟹咸山攝 등은 조음부위가 구강 앞쪽인 운미 [-i]와 [-n]가 있는데, [+후설성]인 성모  $[\eta-]$ 와 [-후설성]인 운미 [-i], [-n]가 함께 출현하면 발음하기가 어렵게 되어 연구개 비음 성모의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요모음과 운미 중 어떤 것이 성모의 변화에 더욱 큰 영향을 주는지 확실하지 않고, 운미 전체를 변화 조건으로 놓고, 경우에 따라 운모 전체 혹은 운미의 조음부위의 영향으로 분석하는 것은 다소 변화 결과에 맞춰서 견강부회하는 모호한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

泥母에 합류하여  $[n-]$ 이 되는 ‘讖, 嚙, 泉, 蘖’ 등 글자에 대해 Hsueh(1975[1990]: 90)는 기존 연구들이 이를 차용에 의한 불규칙한 예로 보았기 때문에 그다지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글자들이 모두 山攝의 三等 혹은 四等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만하지만, ‘妍, 彦’과 같이 영성모로 읽는 반례도 있기 때문에 규칙을 제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張世方

15) <표1>에 나열된 예들은 ‘躡, 黻’을 제외하면 대부분 1등운으로, 이러한 규칙이 일견 타당한 듯 보이지만, 세부적인 상황은 좀 더 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躡는 3등운, 黻은 2등운으로, 이러한 규칙에 부합되지 않는 이유는 알 수 없다.

16) 寧繼福(1985)의 재구음에 근거하면 ‘卍, 聶’는 주요모음이 전설모음 [a]로 이와 같은 경향에는 속하지 않는 예이다.

(2010: 89)의 山攝 예도 이와 관련이 있는데, 운미의 [-후설성]이 疑母 [ŋ-]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후설성] 개음 역시 변화를 촉진시켜 연구개 비음을 설첨 비음으로 이동시켰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재돈(2019: 72-73)은 河南 開封話에 疑母가 ‘你’ [ni], ‘年’ [nian]과 같은 경구개 비음이 된 예를 통해 疑母가 개음과의 동화작용에 의해 연구개 비음에서 점차 앞으로 이동하게 된 것인데, 이러한 변화가 설첨 부위까지 계속 이어져 /n/이 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中古 疑母 [ŋ-]는 11세기 초 北宋 『聲音唱和圖』에 이미 영성모화가 시작되어, 元代 『中原音韻』(1324) 시기에 대다수의 연구개 비음 성모 [ŋ-]가 영성모화 되었으나,<sup>17)</sup> 아직 일부는 음소로 남아있으며, 『中原音韻』은 疑母의 변화가 완성되지 않은 변화 과정 중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17세기 『等韻圖經』(1606)에 반영된 성모 상황에 근거하면, 中古 疑母 [ŋ-]는 연구개 비음이 모두 소실된다.

<표4> 疑母의 변천 시기와 과정(楊劍橋 2005: 156 참고<sup>18)</sup>)

上古	隋-初唐	晚唐五代	9-13世紀	13世紀末-14世紀	17世紀-18世紀初 <sup>19)</sup>
				↗ ŋ	→ ∅, n
ŋ	→ ŋ	→ ŋ	→ ŋ (∅)	→ ∅	→ ∅
				↘ n	→ n
				『蒙古字韻』(1308)	
				『中原音韻』(1324)	『等韻圖經』(1606)
				『洪武正韻』(1375)	『西儒耳目資』(1626)
[朝]『洪武正韻譯訓』(1455)					
[朝]『翻譯朴通事』(1515(?))					
[朝]『朴通事新釋診解』(1765)					
[朝]『翻譯老乞大』(1517)					
[朝]『四聲通解』(1517)					

17) 이는 n-으로 변화된 소수 예를 제외한 서술이다.

18) 9-13세기의 ‘(∅)’은 『聲音唱和圖』에 근거하여 본고에서 추가한 것이다.

19) 王力(1985)은 왕조를 기준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楊劍橋(2005) 보다는 明清 시기

### 3. 朝鮮 時期 文獻에 반영된 疑母

#### 1) 朝鮮 時期 文獻과 중국음

중국 문헌에 표의문자인 한자로 기록된 음은 정확한 음가를 추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四聲通解』(1517), 『翻譯老乞大』, 『翻譯朴通事』(이하 『翻譯老朴』)(1517경) 등 조선 시기 문헌에 표음문자로 기록된 중국음은 중국 근대음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된다. 중국 근대음에서 中古 疑母 [ŋ-]의 변화 양상은 대체적으로 『四聲通解』의 俗音과 今俗音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대체적인 양상이 아닌 이들 문헌에 기록된 개별 글자들의 상황이 당시 북방음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는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주요 자료는 다음과 같다.

『洪武正韻譯訓』(1455), 申叔舟, 高麗大學校出版部 影印本, 1973

『四聲通解』(1517), 崔世珍, 大堤閣 影印本, 1985

『翻譯老乞大』(1517), 崔世珍, 大堤閣 影印本, 1974

『翻譯朴通事』(1515(?)), 崔世珍, 大堤閣 影印本, 1974

『洪武正韻譯訓』과 『四聲通解』는 각 성모 아래 正音을 적고, 개별 글자에 正音과 현실음이 다른 경우 俗音 혹은 今俗音을 적었다.<sup>20)</sup> 『四聲通解』의 正音과 俗音은 기본적으로 『洪武正韻譯訓』의 正音과 俗音이고, 今俗音은 崔世珍이 발음에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발견한 것을 추가한 것이다. 『翻譯老乞大』와 『翻譯朴通事』는 글자 아래 두 개의 음을 표기하였는데, 이 두 음이 다른 시기 층위를 반영하였다는 견해와 표기 방법의 차이라는 견해 등이 있다.<sup>21)</sup>

(1368-1911)로 다소 넓게 분류하였다. 疑母의 연구개 비음이 모두 소실된 시기는 17-18세기로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

20) 『洪武正韻譯訓』은 正音과 俗音, 『四聲通解』은 正音, 俗音, 今俗音이 있다.

다음은 각 문헌간 중국음 표기 체계의 관계를 나타낸 도표이다.

<표5> 각 문헌간 중국음 표기 체계의 관계<sup>22)</sup>

	『洪武正韻譯訓』 (1455)		『四聲通解』 (1517)		『翻譯老乞大』(1517) 『翻譯朴通事』(1515(?))
15C 전	正音	——	正音		
15C	俗音	——	俗音	——	左側音
16C			今俗音	——	右側音

본고는 『四聲通解』의 正音, 俗音, 今俗音에 나타나는 疑母 글자들을 중심으로, 『翻譯老乞大』와 『翻譯朴通事』를 함께 비교하여, 조선 시기 문헌에 나타나는 疑母 글자들의 표음 상황에 대해 분석한다. 『四聲通解』는 모든 글자에 正音, 俗音, 今俗音を 표기한 것이 아니라, 저자가 발음의 시대적 변화를 감지한 글자들을 표기한 것이다.

(예) 『四聲通解』凡例 第八條

注內只曰俗音者, 卽『通攷』元箸俗音也. 曰今俗音者, 臣今所著俗音也. 今俗音或著或否者, 非謂此存而彼無也, 隨所得聞之音而著之也.

『四聲通解』의 正音, 俗音, 今俗音 체계에 존재하는 공란의 의미와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다. 강신항(1980), 주성일(2011) 등은 범례에 근거하여 저자가 알게 된 새로운 음만을 기록한 것이라고 보았다. 愼鏞權(2016)은 『四聲通解』의 今俗音은 正音, 俗音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만 기록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나, 今俗音이 기록된 경우는 몇 안되고, 대다수 今俗音이 기록되

21) 기존의 관련 연구 중 일부는 예로 열거한 글자와 독음에 오류가 있거나, 같은 문헌에 두 가지 독음 표기가 나타나는 사례에 대한 언급 없이 하나의 독음에 근거하여 분석하는 경우 등이 간혹 관찰되므로, 자료 분석에 세밀함이 요구되고, 특히 2차 자료 사 용에 주의해야 한다.

22) 朱星一(2000)을 참고하여 재구성하였다.

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되지 않은 今俗音이 모두 正音, 俗音과 일치한다고 보기에는 의문스럽다고 지적하였다.<sup>23)</sup> 孫建元(2010)은 최세진이 앞 단계 독음과 일치하면 주를 달지 않고, 일치하지 않은 것만 주를 단 것이라고 보았는데, 俗音과 俗音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正音を 합쳐 속음 체계로 보고, 今俗音과 今俗音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속음을 합쳐 今俗音 체계로 보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四聲通解』 각 음의 공란이 단순히 저자가 조사하지 못한 음인지, 아니면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기록을 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중국음 변화 분석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표6> 『四聲通解』(1517) 正音, 俗音, 今俗音 공란의 의미

	正音	俗音	今俗音	예(字: 正音 / 俗音 / 今俗音)
例1	A	B	C	我: ㄱ어 / ㅅ어 / ㅇ오
例2	A	B	無(=B)	仰: ㅅㅅ양 / ㅅㅅ양 / 無
例3	A	無(=A)	無(=A)	宜: ㅅ이 / 無 / 無
例4	A	B	無(=B?)	傲: ㅅㅅ알 / ㅅㅅ알 / 無 (cf. 翻譯老: ㅅㅅ알/ㅅㅅ알) <sup>24)</sup>
例5	A	無(=A?)	無(=A?)	遠: ㅅㅅ원 / 無 / 無 (cf. 翻譯老: ㅅㅅ원/ㅅㅅ원)

위의 표 例2과 例5의 공란은 그 전 시기의 음과 같아서 기록을 안 한 경우로 볼 수도 있고, 새로운 음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로 볼 수도 있다. 例2-3은 공란이 전 단계의 음과 같으며,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기록하지 않은 경우로, 이때 例2의 今俗音은 俗音 B와 같으며, 例3의 공란인 俗音과 今俗音은 모두 正音인 A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例4-5의 俗音과 今俗音은 비슷한 시기의 『翻譯老朴(1515?)』에 최세진이 새로운 음을 반영하여 기록한 것에 비춰볼 때, 俗音 혹은 今俗音이 그 전 단계의 음과 같아서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23) 이영월(2004: 129)은 正音과 俗音은 독서음과 구어음의 차이, 俗音과 今俗音은 북방음의 시대적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24) ‘/’는 각각 좌측음과 우측음이다(左/右).

疑母의 영성모화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今俗音이 나타나지 않는 공란의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만약 俗音이 연구개 비음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今俗音이 공란이면, 이를 연구개 비음의 변화가 발생하지 않은 것인지, 단순히 저자가 조사를 하지 못한 것인지는 매우 관건이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본고는 『四聲通解』 正音, 俗音, 今俗音에 기록된 337개 中古疑母 글자를 중심으로 분석한다.<sup>25)</sup> 본 연구에서 분석한 『四聲通解』에 나타나는 中古疑母 337개 글자 중, 293개 글자는 『四聲通解』疑母에 들어가 있고, 44개 글자는 喻母에 들어가 있다. 正音만 기록된 글자는 206개, 正音, 俗音이 기록된 글자는 106개, 正音, 俗音, 今俗音이 모두 기록된 글자는 18개, 正音과 今俗音이 기록된 글자는 3개이다.

〈표7〉 『四聲通解』 正音, 俗音, 今俗音에 기록된 中古疑母 글자 수

正音	俗音	今俗音	疑母	喻母	總數	비고
有	無	無	169字	41字	206字	正音
有	有	無	106字	0	106字	正音, 俗音
有	有	有	15字	3字	18字	正音, 俗音, 今俗音 喻: 額額詔
有	無	有	3字	0	3字	正音, 今俗音 疑: 釀役業
			總293字	總44字	總337字	

25) 337개 글자는 본고에서 분석한 『四聲通解』疑母 글자와, 일부 喻母 글자에 귀속되어 나타나는 中古疑母 글자를 대상으로 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일부 글자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四聲通解』에 나타나는 中古疑母 글자가 모두 337개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2) 朝鮮 時期 文獻에 반영된 疑母

① 『中原音韻』에서 中古 疑母와 影 喻母가 합류된 글자들의 반영

다음은 中古 疑母가 『四聲通解』의 喻母에 놓인 예로 疑母가 영성모로 변화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경우이다.

<표8> 中古 疑母가 『四聲通解』(1517)의 喻母에 놓인 예

字	中古音韻地位	中原 (1324)	四聲通解 (1517)			繙譯老朴 (1515?)	
			聲	正	俗	今俗	左
疑	止開三平之疑	i	喻	i 이			(老) ʈi 이 ʈi 이 <sup>26)</sup>
擬	止開三上止疑	i	喻	i 이			
宜	止開三平支疑	i	喻	i 이			ʈi 이 i 이
儀	止開三平支疑	i	喻	i 이			
義	止開三去寘疑	i	喻	i 이			i 이 i 이
議	止開三去寘疑	i	喻	i 이			i 이 i 이
誼	止開三去寘疑	i	喻	i 이			
言	臻開三平元疑	ien	喻	iæn 연			iæn연 iæn연
妍	山開四平先疑	ien	喻	iæn 연			
研	山開四平先疑	ien	喻	iæn 연			
迎	梗開三平庚疑	iəŋ	喻	iŋ 잉			ʈiŋ 잉 iŋ 잉
虐	宕開三入藥疑	ɲiau ɲio	喻	iaw 양			
瘧	宕開三入藥疑		喻	iaw 양			
額	梗開二入陌疑	iai ie	喻	ii 의 ɲiiʔ 응 ʈəʔ jəʔ 영			
額	梗開二入陌疑		喻	ii 의 ɲiiʔ 응 ʈəʔ jəʔ 영			
絡	梗開二入陌疑		喻	ii 의 ɲiiʔ 응 ʈəʔ jəʔ 영			

‘疑, 宜’는 『翻譯老朴』 좌측음에 연구개 비음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中原音韻』에서 이미 影母로 귀속되어 이미 영성모가 된 글자를 다시 연구개 비음으로 표기한 원인은 알기 어렵다. 다만, ‘疑’는 『洪武正韻』의 다른 반절에서 疑母인 예들이 두 개 관찰된다.

② 『中原音韻』에서 中古 疑母와 影喻母가 대립되는 글자들의 반영

다음은 『中原音韻』에서 中古 疑母와 影喻母가 대립되는 글자들이 『洪武正韻譯訓』(1455), 『四聲通解』(1517)과 『翻譯老乞大』(1517), 『翻譯朴通事』(1515(?))이하 둘을 합쳐 『翻譯老朴』이라 함), 『朴通事新釋諺解』(이하 『朴新釋諺解』)(1765) 등 문헌에 반영되는 상황이다.<sup>27)</sup>

<표9> 『中原音韻』에서 中古 疑母와 影喻母가 대립되는 글자들의 조선 문헌 반영 예<sup>28)</sup>

字 中古音韻地位	中原 (1324)	洪武譯訓 (1455)			四聲通解 (1517)			비고 <sup>29)</sup>
		聲	正	俗	聲	正	俗 今俗	
傲 效開一去号疑	ŋau	疑	ŋaw알	aw알	疑	ŋaw알	aw알 (?) <sup>30)</sup>	翻譯老朴(1515?) aw알 / ao알 現代: ào

26) 『翻譯老乞大』 大堤閣 影印本(1974)의 56쪽.

27) 분석 기준은 『四聲通解』(1517)에 출현하는 疑母 글자들이며, 이들 글자들이 韓中 문헌에 나타나는 상황을 비교한다.

28) 조선 시기 문헌에 표기된 글자는 ‘ㅇ’과 ‘ㅇ’의 글자체의 유사함에서 오는 혼란을 줄이고, 가독성과 직관성을 위해 각각 국제음성부호 ‘ŋ(ㅇ)’와 ‘-(ㅇ)’를 함께 표기한다. 표의 빈칸은 본고가 해당 문헌에서 출현 예를 찾지 못한 경우이다. 이것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 글자가 해당 문헌에 수록되지 않았을 수도 있고, 본고에서 찾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향후 해당 글자를 발견할 경우 공란을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비고는 지면 관계 상 『老乞大』, 『朴通事』 언해서류에서 해당 글자를 찾은 경우, 문헌명과 함께 좌측음과 우측음을 함께 기입하였다. ‘현대음’은 표준 중국어를 가리키며, 한어병음으로 표기한다. 『四聲通解』와 『老乞大』, 『朴通事』언해서의 한글 표기의 음가는 강신항(2003)을 따른다.

鏊 效開一去号疑	ŋau	疑 ŋaw알 aw알	疑 ŋaw알 aw 알	
冪 效開一去号疑	ŋau	疑 ŋaw알 aw알	疑 ŋaw알 aw알	
我 果開一上哥疑	ŋo	疑 ŋə어 ə어	疑 ŋə어 ə어 o오	翻譯老朴(1515?) ə어 / o오 朴新釋諺解(1765) ŋə어 / o오 現代: wǒ
餓 果開一去箇疑	ŋo	疑 ŋə어 ə어	疑 ŋə어 ə어 o오	
仰 宕開三上養疑	ŋiaŋ	疑 ŋaŋ양 ŋiaŋ양	疑 ŋaŋ양 iaŋ양	
仰 宕開三去漾疑	ŋiaŋ	疑 ŋaŋ양	疑 ŋaŋ양	
虐 宕開三入藥疑	ŋiau ŋio	喻 iak약	喻 iaw얕	現代: nüè
瘧 宕開三入藥疑	ŋiau ŋio	喻 iak약	喻 iaw얕	現代: nüè

『中原音韻』에서 中古 疑母와 影喻母가 대립되는 글자들의 조선 문헌 반영 예를 살펴보면, 『洪武正韻譯訓』, 『四聲通解』, 『翻譯老朴』의 속음과 우측음에는 疑母가 영성모로 표기가 되어 있다. ‘傲’는 『四聲通解』의 속음에 ‘aw알’로 나타나지만, 금속음은 없다. 그러나 『翻譯老朴』의 우측음에 ‘ao오’가 있음에 비춰볼 때, 최세진이 당시 이미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四聲通解』 금속음에는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알기 어렵다. 이러한 예가 종종 발견되는데, 이런 공란이 있기 때문에, 『四聲通解』의 속음이나 금속음의 음운체계에 대한 분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존 일부 연구는 『四聲通解』의 속음과 금속음의 공란에 대해, 음운 변화가 발생하지 않아 전 단계 음과 같아 기록을 생략한 것으로 일괄 처리하여 『四聲通解』의 속음과 금속음의 음운체계를 개괄하였다. 그러나 이 공란의 성격은 음변화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29) ‘/’를 경계로 왼쪽에 있는 것은 ‘좌측음’,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측음’을 나타낸다.  
30) 이하 표 안의 ‘(?)’는 다른 관련 자료에 비춰볼 때, 저자가 이미 발생한 변화에 대해 인지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으므로 마땅히 독음이 기록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타낸다.

저자가 조사하지 않은 공백이거나, 누락된 경우 등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세밀한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다.

中古 疑母 글자인 ‘虐瘡’은 『洪武正韻』에서 喻母로 귀속되어 있다. 『洪武正韻譯訓』과 『四聲通解』 모두 이들 글자는 喻母로 귀속되어 있으며, 영성모로 표기되어 있고, 속음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洪武正韻譯訓』과 『四聲通解』 간 입성운미 표기(-k와 -w)에 차이가 있다.

### ③ 『中原音韻』의 中古 疑母가 泥母로 귀속된 글자들의 반영

<표10> 『中原音韻』에서 泥母에 들어간 中古 疑母 글자

字	中古音韻地位	中原音韻	字	中古音韻地位	中原音韻
藥	山開三入薛疑	車遮一 nie	齧	山開四入屑疑	車遮一 nie
讞	山開三上獮疑 山開三入薛疑	先天一 nien	臬	山開四入屑疑	車遮一 nie

다음은 中古 疑母의 독음이 [n-]과 관련된 예로, 『中原音韻』에서 泥母로 귀속된 글자들과, 『中原音韻』에서는 [n-]이 아니지만, 현대 보통화에서 [n-]으로 발음하는 글자들이다.

<표11> 中古 疑母의 독음이 [n-]과 관련된 예

字	中古音韻地位	中原 (1324)	洪武 (1375)	中州 (1506)	洪武譯訓(1455)		四聲通解(1517)		비고 現代音
					聲	正 俗	聲	正 俗 今俗	
讞	山開三上薛疑	nien	語塞切 倪甸切	尼塞切	疑	ɲiən연	疑	ɲiən연	yàn
藥	山開三入薛疑	nie	魚列切		疑	ɲiət연	疑	ɲiə어 (?) (?)	niè
臬	山開四入屑疑	nie	魚列切	尼夜切	疑	ɲiət연	疑	ɲiə어 (?) (?)	niè
闕	山開四入屑疑	nie			疑	ɲiət연	疑	ɲiə어 (?) (?)	niè
齧	山開四入屑疑	nie	魚列切	尼夜切	疑	ɲiət연	疑	ɲiə어 (?) (?)	niè
凝	曾開三平蒸疑	iəŋ			疑	ɲiŋ잉	疑	ɲiŋ잉	ning
牛	流開三平尤疑	iəu	于求切	移鳩切			疑	ɲiw일 niw닐 (?)	niú 翻譯老朴:닐/누

							新釋諺解:일/부 重刊老諺:일/부
釀 宕開三去漾娘	niaŋ 魚向切 泥降切	疑 ŋaŋ양	疑 ŋaŋ양	iaŋ 양			niàng
虐 宕開三入藥疑	ŋiau ŋio 弋灼切	喻 iak약	喻 iaw얏	(?)	(?)		nüè
瘧 宕開三入藥疑	ŋiau ŋio	喻 iak약	喻 iaw얏	(?)	(?)		nüè
倪 蟹開四平齊疑	i 研奚切 牛加切 盈雞切 倪制切		喻 iai예				ní
輓 蟹開四平齊疑	i 研奚切 倪制切 盈雞切		喻 iai예				ní

현대 북경음의 疑母 글자들이 불규칙적으로 n-으로 발음되는 특수한 예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中原音韻』의 소수 글자들에서 관찰되며, 남방 방언과 남방음을 기저음으로 하고 있는 문헌에서 많이 관찰되는 현상이다. 조선 시기 문헌에서는 상용자 ‘牛’를 제외하고 이러한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지 않다. ‘讞孽孽臬樂閑齧’ 등 『中原音韻』에서 이미 n-으로 변화한 글자들은 『四聲通解』의 속음, 금속음 혹은 『翻譯老朴』 등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거나, 수록되어 있지 않다.

서양 선교사들이 관화를 기록한 문헌에는 疑母의 변화가 일부 반영되어 있다.

(예) 『西儒耳目資』(1626)에 나타나는 疑母[n-]의 예

- a. 逆 niě
- b. 凝 ì, nì      牛 niêu, iêu
- c. 宜 nî, î      疑 nî, î      義 ní, í      業 niě, iě      嚴 niên, iên

(예a)는 현대 북경음과 같은 것이고, (예b)는 현대 북경음과 같은 독음과 영성모 독음이 나타나는 예이고, (예c)는 현대 북경음과 다르며, 영성모와 함께 두 개의 독음이 나타나는 예이다. (예b)와 (예c)는 당시 疑母가 세음성 개음 앞에서 영성모와 n- 등 두 개의 변이음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반영하며, (예a)

는 n-으로 정착된 상황을 반영한다.

세음성 개음이 있는 疑母 글자가 설첨 비음이 되는 현상은 북방 일부 방언과 남방 방언에서 자주 관찰된다.

<표12> 疑母 三等 글자의 현대 중국어 방언 독음<sup>31)</sup>

	逆	迎	牛	孽	凝	宜	儀	疑	虐	瘧	仰	業	嚴
北京	n	0	n	n	n	0	0	0	n	n	0	0	0
西安	ŋ	0	n	ŋ	ŋ, k <sup>h</sup>	0, ŋ	0	ŋ	0	0	0, ŋ	0, ŋ	0, n
成都	ŋ	0	n	ŋ	ŋ	n	ŋ	ŋ	0	0	0	ŋ	n
武漢	n	0	n	n,	n	ŋ	0	0	n, 0	n, 0	0	0	0
揚州	l	0	l	l	l	0	0	0	l	l	l	0	0
濟南	0	0	n	ŋ	0	0	0	0	0	0	0	0	0
太原	n	0	n	n	n	0	0	0	0, n	0, n	0	0	0
合肥	l	0	l	l	l	0	0	0	l	l	0	0	0
雙峰	ŋ	0	n	ŋ	ŋ	ŋ	ŋ	ŋ	ŋ	ŋ	ŋ	ŋ, ŋ	n
長沙	ŋ	0	n	ŋ	ŋ	ŋ	ŋ	ŋ	ŋ	ŋ	ŋ	ŋ	n, ɲ
南昌	ŋ	0	n, ɲ	ŋ	ŋ	ŋ	ŋ	ŋ	ŋ	ŋ	0, ŋ	ŋ	n, ɲ
蘇州	ŋ	ŋ	n	ŋ	ŋ	ŋ	ŋ	ŋ	ŋ	ŋ, ɲ	ŋ	ŋ	n
溫州	ŋ, 0, j	ŋ	ɲ	ŋ	ŋ	ŋ	ŋ	ŋ,	ŋ	ŋ	ŋ	ŋ	n, ɲ
陽江	ɲ	ɲ	ɲ	ɲ	ɲ, k <sup>h</sup>	j	j	j	j	j	j, ɲ	j	j
廣州	j	j	ɲ	j	j, k <sup>h</sup>	j	j	j	j	j	j, ɲ	j	j
梅縣	ŋ	ŋ	n	ŋ	ŋ, k <sup>h</sup>	n	ŋ	ŋ	ŋ	ŋ	ŋ	ŋ	n
潮州	ɲ	ɲ	g	ɲ	ɲ, k	ɲ	ɲ	g	ɲ	ɲ	ɲ	ɲ	ɲ
廈門	g	g	g	g	g, k	g	g	g	g	g	g	g	g
建甌	ɲ	ɲ, n	n	ɲ	ɲ	ɲ	ɲ	ɲ	ɲ	ɲ	ɲ	ɲ	ɲ
福州	ɲ	ɲ	ɲ	ɲ	ɲ	ɲ	ɲ	ɲ	ɲ	ɲ	ɲ	ɲ	ɲ

31) 방언 자료는 『漢語方言字彙(第二版重排本)』(2003)를 참고하였다.

17세기 초 『西儒耳目資』가 기록하고 있는 관화의 성질에 대해서는 토론의 여지가 있지만, 그것이 기록하고 있는 당시 언어의 생생한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 최세진과 니콜라스 트리고의 자료에 약 1세기 시기 차이가 있어, 최세진이 『西儒耳目資』 그 이후의 음변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최세진이 14세기 초 『中原音韻』에 나타난 변화도 반영하지 않은 점은 최세진의 자료가 당시 현실음을 제대로 반영(혹은 기록)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재고의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문헌의 성격 상, 중국어 교재인 『老乞大』, 『朴通事』에 수록되는 글자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음운체계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 일부 상황만을 참고할 수 있을 뿐이다. 개별 글자 역시 ‘牛’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특수 음변화가 반영이 된 상황보다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 많기 때문에, 조선 문헌과 중국음의 변화 상황과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④ 기타

『四聲通解』(1517)의 疑母에 中古 喻母 글자들이 놓인 예는 아래와 같다.

<표13> 中古 喻母가 『四聲通解』(1517)의 疑母에 놓인 예

字 中古音韻地位	中原 (1324)	洪武譯訓(1455)			四聲通解(1517)			翻譯老朴(1515경)	
		聲	正	俗	聲	正	俗 今俗	左側音	右側音
寅 臻開三平眞以	iæn	疑	ŋin인	0in은	疑	ŋin인	0in인		
寅 臻開三平眞以	iæn	疑	ŋin인	0in은	疑	ŋin인	0in인		
臙 臻開三平眞以		疑	ŋin인		疑	ŋin인	0in인		
蟻 臻開三平眞以		疑	ŋin인		疑	ŋin인	0in인		
遠 山合三上阮云	iuen				疑	ŋuiæn원	(?) (?)	Oiuiæn원	Oiuiæn원
遠 山合三去願云	iuen	疑	ŋiæn연		疑	ŋuiæn원			
瑗 山合三去線云		疑	ŋuiæn원		疑	ŋuiæn원			

媛 山合三去線云	疑 ɲiuiən원	疑 ɲiuiən원	
援 山合三去線云 iuen	疑 ɲiuiən원	疑 ɲiuiən원	
院 山合三去線云 iuen	疑 ɲiuiən원	疑 ɲiuiən원	
榧 山合三入月云 iue	疑 ɲiuiət원	疑 ɲiuiə위	
蠅 山合三入月云 iue	疑 ɲiuiət원	疑 ɲiuiə위	
蜩 山合三入月云	疑 ɲiuiət원	疑 ɲiuiə위	
鉞 山合三入月云 iue	疑 ɲiuiət원	疑 ɲiuiə위	
越 山合三入月云 iue	疑 ɲiuiət원 ɲiuiə?웁	疑 ɲiuiə위 (?) (?)	ɲiuiə?웁 Oiuiə위
曰 山合三入月云	疑 ɲiuiət원	疑 ɲiuiə위	
粵 山合三入月云	疑 ɲiuiət원	疑 ɲiuiə위	
悅 山合三入薛以	疑 ɲiuiət원	疑 ɲiuiə위	
說 山合三入薛以	疑 ɲiuiət원	疑 ɲiuiə위	
閱 山合三入薛以	疑 ɲiuiət원	疑 ɲiuiə위	
役 梗合三入昔以 i	疑 ɲiuiək웁 Oi?잉	疑 ɲiui위 Oi?잉	
疫 梗合三入昔以		疑 ɲiui위	
域 曾合三入職云	疑 ɲiuiək웁 Oi?잉	疑 ɲiui위 (?)	
滅 曾合三入職云	疑 ɲiuiək웁 Oi?잉	疑 ɲiui위 (?)	
罍 曾合三入職云	疑 ɲiuiək웁 Oi?잉	疑 ɲiui위 (?)	
械 曾合三入職云	疑 ɲiuiək웁 Oi?잉	疑 ɲiui위 (?)	
虻 曾合三入職云	疑 ɲiuiək웁 Oi?잉	疑 ɲiui위 (?)	
絨 曾合三入職云	疑 ɲiuiək웁 Oi?잉	疑 ɲiui위 (?)	

『四聲通解』(1517)의 疑母에 놓인 글자들 중 中古 喻母 글자들의 예도 많이 관찰되는데, ‘寅, 糞, 臙, 蠓’ 등 일부 글자의 俗音에 영성모로 기재된 예를 제외하고, 대부분 연구개 비음 성모 ɲ(ㅇ)인 正音만 기록되어 있다. 중국어 음운사에 근거하여 볼 때, 中古 喻母가 다시 연구개 비음 성모로 변화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수한 음변화가 발생한 방언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으나, 『翻譯老朴』 우측음에 ‘越’이 영성모인 ‘Oiuiə위’로 기록된 점에 근거하면, 이들 글자들의 성모가 ‘여전히’ 연구개 비음이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四聲通解』의 正音, 俗音, 今俗音의 공란이 전 단계(체계)의 음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기록이 안된 것으로 보기 보다는 저자가 조사하지 못하여 기록이 안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翻譯老朴』 右側音에는 새로운 음이 기록되어 있으나 『四聲通解』 今俗音은 공란인 예이다.

<표14> 『翻譯老朴』 右側音에는 새로운 음이 기록되어 있으나 『四聲通解』 今俗音은 공란인 예

字	四聲通解(1517)				翻譯老朴	
	聲	正	俗	今俗	左側音	右側音
玉	疑	ɲiu유			ɲiu유	iu유
魚	疑	ɲiu유			ɲiu유/ iu유	iu유/ iu유
漁	疑	ɲiu유			ɲiu유	iu유
語	疑	ɲiu유			ɲiu유	iu유
五	疑	ɲu우			ɲu우	u우
誤	疑	ɲu우			ɲu우	u우
僞	疑	ɲui위			ɲui위	ɲui위
疑	疑	ɲ이	(?)		ɲ이	ɲ이
月	疑	ɲuiᄃ위			ɲuiᄃ위	iuᄃ위
越	疑	ɲuiᄃ위			ɲuiᄃ위	iuᄃ위
迎	喻	iq잉			ɲiq잉	iq잉

같은 시기, 같은 저자가 기록하였으나, 『翻譯老朴』 右側音에는 영성모로 변화한 새로운 음이 기록되어 있고, 『四聲通解』에는 正音만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공란으로 되어 있는 글자들은 이후 음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다는, 최세진이 『翻譯老朴』 右側音에 영성모로 기록한 것에 비춰 볼 때, 당시 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발견한 바 있고, 이를 인지하였지만, 『四聲通解』에 기록을 안하고 누락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예들을 통해 당시 최세진의 당시 현실음에 대한 조사와 기록이 전면적이지 않았으며, 어떠한 규칙과 기준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기록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산발적으

로 기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결론

본 연구는 疑母를 예로, 『四聲通解』, 『翻譯老乞大』, 『翻譯朴通事』 등 조선 시기 문헌에 중국 근대음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구체적인 예를 통해 살펴보았다. 중국 근대음과 관련된 주요 문헌인 『中原音韻』(1324)과 『蒙古字韻』(1308), 『重訂司馬溫公等韻圖經』(1606), 그리고 서양선교사가 기록한 관화인 『西儒耳目資』(1626) 등에 기록되어 있는 中古 疑母의 상황과 『四聲通解』, 『翻譯老乞大』, 『翻譯朴通事』의 俗音, 今俗音, 右側音 등 여러 자료를 종합하여 비교한 결과, 전면적인 음변화 양상이 체계적으로 반영되지 않았고, 개별 글자의 반영 여부 역시 수의적이고 산발적이었다. 특히 正音, 俗音, 今俗音의 체계와 시기 층위 반영 여부, 공란의 의미와 자료로서의 가치에 대해 재고찰하였는데, 분석 결과, 正音, 俗音, 今俗音의 체계가 각각 모두 다른 시기 층위를 완전하게 반영하지는 않으며, 각 체계가 동일한 시기를 반영한다고 보기에 어려운 예들도 관찰되었다. 또한 『四聲通解』의 공란은 모두 전 단계 체계음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기록된 새로운 음도 매우 수의적으로 선택되어 기록되었다. 최세진이 당시 현실음을 조사한 방식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최세진의 현실음의 조사 방법이 『四聲通解』와 같은 문헌을 기준으로 수록한 전체 글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하였는지에 대한 것이다. 앞에서 분석한 『四聲通解』의 속음과 금속음의 공란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면, 범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최세진은 전체 음운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기록을 하였다기 보다는 새로운 음변화를 발견한 개별 글자들을 산발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조선 시기 문헌 자료에 반영된 현실음의 시기와 기저음이 반영하는 예 뿐만 아니라, 반영하지 않는 예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문헌이 기록한 기초 방언의 정의에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洪武正韻譯訓』(1455), 申叔舟, 高麗大學校出版部 影印本, 1973.
- 『翻譯朴通事』(1515(?)), 崔世珍, 大堤閣 影印本, 1974.
- 『四聲通解』(1517), 崔世珍, 大堤閣 影印本, 1985.
- 『翻譯老乞大』(1517), 崔世珍, 大堤閣 影印本, 1974.
- 강신항(1980), 『四聲通解研究』, 서울: 新雅社.
- 강신항(2003), 『韓漢音韻史 研究』, 서울: 대학사.
- 노혜정(2018), 「中古 중국어 疑母의 변화에 대한 이론적 고찰」, 『中國語文論叢』 第90輯, 1-21.
- 愼鏞權(2016), 「『四聲通解』에 나타난 今俗音의 성격에 대하여」, 『中國文學』 92, 225-254.
- 신용권(2019), 『노걸대와 박통사 언해서의 중국어음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이영월(2004), 「『四聲通解』의 正音·俗音·今俗音 성격 고찰: 『洪武正韻』과 『蒙古字韻』과의 關係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 제29호, 119-131.
- 이재돈(1993), 「『四聲通解』에 반영된 16世紀 中國語音系 研究」, 『中國文學』 第21輯, 287-314.
- 이재돈(2019), 『중국어 통시음운론』, 서울: 학교방.
- 주성일(2011), 「『四聲通解』에 반영된 近代漢語 어음 연구」, 『中國文學研究』 제42집, 293-327.
- 北京大學中國語言文學系語言學教研室編(2003), 『漢語方言字彙』(第二版重排本), 北京: 語文出版社.
- 董同龢(1968[2001]), 『漢語音韻學』(第五版), 北京: 中華書局.
- 寧繼福(1985), 『中原音韻表稿』,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 孫建元(2010), 『『四聲通解』今俗音研究』, 北京: 中華書局.
- 唐作藩(2012[2017]), 『漢語語音室教程』(第二版),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王力(1985), 『漢語語音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楊劍橋(2005), 『漢語音韻學講義』,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 楊耐思(1981), 『中原音韻音系』,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楊耐思(2012), 『近代漢語引論(增補本)』, 北京: 商務印書館.
- 張世方(2010), 『北京官話語音研究』, 北京: 北京語言大學出版社.
- 趙蔭棠(1984), 『中原音韻研究』,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 朱星一(2000), 『15、16世紀朝漢音研究』, 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
- 濱田武志(2019), 「論『蒙古字韻』所反映的漢語方言音系」, *Bulletin of Chinese Linguistics* 12: 88-128.
- Coblin, W. South(1997), Notes on the Sound System of Late Ming Guanhua, *Monumenta Serica* 45: 261-307.
- Hsueh, F. S.(薛鳳生) (1975), *Phonology of Old Mandarin*, The Hague: Mouton;
- 김태경·손미란·이영원·장재웅·최병권 역(1990), 『취에형성의 중국어 음운학 특강』, 서울: 현학사.
- Shen, Zhongwei(沈鍾偉)(2020), *A phonological history of Chinese*, N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bstract

Reconsidering the reflexes of early Mandarin in mid-16th century Korean texts:  
The case of the initial Yi (疑)

Roh, Hye Jeong

This article cites specific examples of the initial Yi (疑) as transcribed in mid-16th century Korean texts such as *Saseongtonghae* (四聲通解), *Beonyeok Nogeoldae* (翻譯老乞大), and *Beonyeok Baktongsa* (翻譯朴通事) and reconsiders the reflexes of early Mandarin in such texts. The initial Yi (疑) had already changed from a velar nasal to a zero-initial sound in early Mandarin in the northern region of China, but this change was not reflected in its entirety in Korean transcriptions, except sporadically in a few characters. In addition, the Korean texts of that period were transcribed using either ◦ <ŋ> or ◦ <∅>. Contrary to expectations, the transcribed material in mid-16th century Korean texts does not contain the complete set—a range of codas and all characters in the initial category—required to observe the phonological changes in early Mandarin. Korean texts, therefore, can only serve as additional circumstantial evidence for the phonological changes in early Mandarin.

**Key words:** the initial Yi(疑), velar nasal, ◦ <ŋ>, ◦ <∅>, early Mandarin, Korean transcriptions, *Saseongtonghae* (四聲通解), *Beonyeok Nogeoldae* (翻譯老乞大), *Beonyeok Baktongsa* (翻譯朴通事)

투 고 일 : 2021. 10. 10. / 심 사 일 : 2021. 10. 15. ~ 2021. 11. 15. / 게재확정일 : 2021. 11. 20.

